

## 2025년 10월 5일 주일 연중 제27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입당성가 : 480번 '믿음으로'**

###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하바국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장 2절-3절; 2장 2절-4절**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서 : 2티모테오 1장 6절-8절. 13절-14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7장 5절-10절**  
**강 론 :**

**예물준비성가 : 239번 ‘거룩한 어머니’**

**영성체 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증언하며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분부를 받은 일을 다 하고 나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 한가위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36번 ‘주 날개 밑’**

### 본기도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요엘 2장 22절-24절. 26절**

**화답송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 14장 13절-16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2장 15절-21절**

**강 론 :**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 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하고 요엘 예언자는 권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하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16번 ‘종기도 종을시고’**

## 2025년 10월 12일 주일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현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샘이시니,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맙시다.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 본기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열왕기 하권 5장 14절-17절**

**화답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독서 : 2티모테오 2장 8절-13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7장 11절-19절**

**강 론 :**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 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치유를 받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감사드린 시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자비를 입은 열 명 가운데 혼자 돌아와 감사드린 외국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50번 ‘굽어보소서 성모여’**

**2025년 10월 19일 주일(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입당성가 :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본기도**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 2장 1절-5절**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서 : 로마서 10장 9절-1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복음 28장 16절-2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46번 ‘창파에 뜬 일엽주’**

**영성체 성가 : 151번 ‘주여 임하소서’**

### **영성체 후 묵상**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 2025년 10월 26일 주일 연중 제30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이들의 기도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오르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뉘우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입당성가 :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집회서 35장 15절-17절. 20절-22절**

### 화답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제 2 독서 : 2티모테오 4장 6절-8절. 16절-18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8장 9절-14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